

98.5.28.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(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)

「신학의 사조」 10: 해방신학(제3세계/남미의 정치신학)

<12 강좌> 계획 -- 어거스틴에서 포스트-모던까지

-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. 어거스틴  | 2. 토미즘       | 3. 종교개혁       |
| 4. 경건주의  | 5. 자유주의      | 6. 근본주의       |
| 7. 신정통주의 | 8. 실존주의(볼트만) | 9. 정치신학(몰트만)  |
| 10. 해방신학 | 11. 환경/생명신학  | 12. 포스트-모던 신학 |

I. 지난 시간 요지

1. 독일의 1970년대(60년대 태동), 정치신학(80년대 이후, “평화신학”쪽으로 이동)
2. 대표적 인물: Jürgen Moltmann, Johannes Metz
3. 개념/용어 정의 -- “새로운” 정치신학 -- 교회의 정치화 거부,  
그러나 정치의식 고양, 정치력 행사, “복음 선포의 정치적 의미” 추구  
(실존주의+사회학)
4. 질문/출발점 -- “After Auschwitz,” “After Hiroshima,” 신학은 가능한가?  
Metz, Moltmann, “Yes!” “In Auschwitz”에도 “신학”은 있었다.
5. 독일의 “정치신학”은 참회하는 자의 신학, 독일인들의 사고 방식의 전환점
6. “탈사사화”(depravitization of faith) ; “탈이데올로기화”(“침묵은 status quo<기득권>  
에 동조/협력함;” “정치적으로 순진한” 종교/신학은 없다.
7. 한 사례: <적의 공격에 어떻게 나를 지킬까?> 묻지 않는다;  
<어떻게 적의 적의를 죽/줄일까?>를 묻는다.

II. 남미의 해방신학

1. 개괄

1. 발생 시기: 1970년대(68년, 남미 주교총회)
2. 대표적 인물(대부분 가톨릭):  
(교육학자 Paulo Freire), Gustavo Gutierrez, Juan Luis Segundo, Leonardo Boff,  
Jon Sobrino, Miguez Bonino(감리교)
3. 개념/용어 정의 -- 해방신학=남미의 정치신학
4. 질문/출발점:  
기독교의 “구원”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“해방” 과정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?
5. (독일의 “정치신학”은 참회하는 자/가해자의 신학) 남미의 해방신학은 “해방꾼들(피억

압자들 자신)의 신학

“/” 토레스 신부의 전사 이야기:”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성찬식(감사의 식사)이 가능한가?”

6. 역사적 배경

- 1960년대, 독일의 정치신학  
1962-65, 제2 바티칸, “열린 가톨릭” 운동  
1964년, 프레이리, “의식화” 개념 등장(해방의 의식화 운동)  
1968년 7월, “해방신학 서설” 구티에레즈 발표  
1968년 8-9월, 제2차 남미 주교총회(메델린 회의), “가난한자들의 세상” 발견  
1979년, 2월 3차 주교회의(프에블라 회의):해방의 “영성” 발견  
(1990년대, 생태학과 만남, “사회적 생태계신학”으로 발전?)

## 2. 해방신학의 주요 개념 (구티에레즈, 보니노, 소브리노, 세군도 등의 사상 참조)

### 1) 해방의 교육학: 프레이리의 “해방 과정으로서의 의식화”

\*/ “주입식 계몽주의?”

- (1) 사물의 대상적/객관적 인식 (2) 즉각적 반응(아직은 ‘인식’ 못됨)
- (3) 대상의 존재 이유/실상의 “비판적 인식”
- (4) 역사적 현신/참여
- (5) (억압적 현실) ‘고발’+ (해방적 미래/“유토피아) ‘선포’  
(denouncing & announcing)
- (6) 피억압자들, “공포를 넘어서야” --> “고통스런 탄생”

### 2) 해방의 신학의 기본 개념

#### (1) 두 가지 해방신학

- 가난한 자들의 해방을 위한 신학
- 억압자들 편에선 기독교 전통 신학의 해방

#### (2) 가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에 기초한 새로운 이해 -- 출발점

가난은 저개발의 결과가 아니라, 착취 제도(자본주의/죄악)의 결과이다.

- (3) 신앙= 교리 신봉,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“역사적 예수의 발자취를 따름”
- (4) 예수 = 가난한 자 편에선 해방자,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해방자.

누가 4:18-19 (해방신학의 성경)

\*/ 예수의 십자가(자기 희생의 길) = “acid test” “무거운 짐”

#### (5) 죄로부터의 구원==> 가난으로부터의 해방

- . 정치적/사회적 차원 -- 제도적 모순, 억압의 현실
- . 역사적 차원 -- “사람”이 아닌 자들, 노예, 자신의 역사의 주인공
- . 종교적 차원 -- 신과의 단절, 소외, “이웃 속에서 그리스도 발견”

#### (6) 가난/빈곤의 전통적/새로운 이해(박 정권의 주제, 순복음교회, 해방신학의 주제)

<1> 물질적 빈곤=치욕의 상황, 비인간적 상황, 극복의 대상  
가난한 자, 잘못 타고난 운명 탓이 아니라 “희생자”

요기:24:2-12, 14; 아모스 2:6-7; 이사야 10:1-2

<2> 정신적 순박성(spiritual childhood)=하느님을 향한 개방성, 겸손, 하느님밖에 의지하지 않음, 기원전 7세기, 스바냐 예언자 이후 관용어화(교만의 반대)(슌2:3)

마태5:1에서 극치

<3> 누가 6:20은 문제 제기 -- 빈곤한 자가 복 있는 자!

. 선택하지 않은 사회/경제적 처지가 복? 특권적 지위에 있는가?

**빈곤의 미화/영화?** 본문은 천국 도래 때문에 복 있다 선언.

.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성 +가난 극복의 저항(현신)의 결과로서의 빈곤.

<사랑 행위/해방의 행위의 결과로서의 빈곤>

#### (7) 교회 => 두 번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, 미래의 표징 공동체

\*/ “기초/하부 공동체”(base community)는 가톨릭 신학의 산물

#### (8) 하느님=편드는 하느님

“중립”은 이미 죄악의 편이다; 하느님을 아는 것 = 정의의 실천하는 것

\*/ “정의”는 편파적인 것, “보편적 정의” (인간에게는) 없다.

\*/ 폭력의 정당성은 상황에서 온다. “기다릴 수 없다.”

#### (9) 해방의 영성 -- ????? 음모 혹은 발전?

#### (10) 공헌=새로운 신학 하기, “철저히 아래로부터, 상황에서부터.” LA의 한인 상황은??